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은행 사업 교육

✎ 이형동 기자 | ☎ 승인 2025.07.10 11:43

안정적 정착과 유입 촉진 위해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2025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농지은행 사업 교육 참가자들이 단체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9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인력의 농업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된 청년농 47명에게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제공해 농지를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농지매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안내했다.

이는 초기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돈문 지사장은 "이번 교육은 청년농이 영농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들이 현장 중심의 정보와 지원책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hd60lee@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